

김씨효행가



[해제]

<김씨효행가>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이다. <복선화음가>는 올바른 부녀의 행실을 지켜, 쇠패한 시집을 되살린 서술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부분이 전반부를 구성하고,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댁으로 시집왔지만 방탕한 행실을 일삼은 개똥어미의 패가망신한 내용을 후반부에 구성함으로써,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행실을 일삼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복선화음(福善禍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방가사이다. 사구고(事舅姑), 사군자(事君子), 화형제(和兄弟), 목친척(睦親戚) 등 일률적 내용으로 교훈하는 전형 계녀가와는 다르게 서술자의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딸에게 시집살이에서의 행실 규범을 교훈하고 있는 변형 계녀가이다. 이 <복선화음가>는 지금까지 80여종이 넘는 이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활발한 향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김씨효행가>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이지만, 일반적 구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복선화음가> 이본의 경우, 개똥어미의 방탕한 행실을 서술자의 모범적 행실과 대비하는 구성인데, <김씨효행가>는 개똥어미의 행실이 없고 대신 서술자의 모범적 행실과 그로 인한 행복한 삶이 확장되어 진술되고 있다.

[원문]

김씨효행가

어화 세상에 경향을 막론하고
 시집안간 규중처녀 출가한 젊은부녀
 이내말삼 들어보소 내몸이 여자되어
 김한림의 종손녀요 정학사의 외손이라
 열녀전 효경편을 십삼세에 능통하고
 침선방직 여공범절 십사세에 성취하니
 행동거지 처신범절 누가아니 칭찬하리
 악한사람 경계하고 착한사람 본을바다
 부모에게 화용유색 노복에게 은언순사
 부모님이 시키신일 순수하야 승명하고
 언어행동 삼가하니 꾸중걱정 못들었고
 비복들의 잘못된일 조흔말로 경계하고
 옳은도로 가르치니 원망형의 있겠느냐
 일가친척 칭찬하고 남녀노복 기리는말
 천상선여 우리소저 임사지덕 가졌으니
 오복구천 하라로다 금이옥식 고히자라
 십오세가 겨우되어 강호에 출가할세
 김판부의 종손부라 훈행위의 장할시고
 거리거리 구경꾼들 누가아니 흠손할가
 풍뉴남자 오라버님 배행기구 화려하다
 신행길 수상일에 강호에 득달하니
 시댁이 어데메냐 주름속으로 잠간보니
 청강변에 수간두옥 동으로 쓰레하고

서으로 기우러져
집모양도 가련하다
반벌은 좋건만은 가새가 구간하니
신행의 허다하인 밥인들 먹일소나
합거지 수팔연과 은쟁반의 폐백조를
도로혀 무색하다 현구고 폐백후에
눈을깜고 앓았으니 구경꾼 늙은할미
수근수덕 하는말이 곱고귀이 길린낭자
강구한 이시집을 배급파 어찌살고
극란하다 혼인이여 저다지도 속았는가
하루밤을 지낸후에 혼행하인 희정할제
오라버니 나를보고 비참하여 하는말이
가새가 일러하니 할일없다 도로가자
애지중지 우리누의 금옥같은 우리누의
부귀생장 우리누의 악이악식 못보았고
빙궁기한 몰랐으니 이고생을 어찌하리
남매간 깊은정이 참아두고 못가겠다
요보세요 오라버니
이말씀이 웬말이요
여자가 출가하면 부모형제 머리지고
혼인의 재물의논 오랑캐의 품속이라
빈부궁달 각유시니 시댁의 간구한말
부모전에 부디마오 부모님 들으시면
침식불안 걱정되어 불효덜가 염여되니
좋은말노 아뢰소서 부모님 들으시면
방심괴락 하실지라 부모마음 편하시면
이것도한 효성이라
수간두옥 허술하나
구고개신 내집이요 화당금옥 좋은집은
부모계신 집이로다 하늘이 정한팔자
순수하면 복이되여 빈희위부 될것이요
시집사리 심하여도 매사가 내게있어
부모님의 뜻을받아 효성지극 봉양하면
도로혀 강동하사 기특하다 사랑나니
아무염려 마르시고 그런말씀 다시마소
오라버님 하는말이
무던하다 너말이여
요조속녀 몰랐더니 지금이야 보리로다

효행이 저려하니 복록무궁 하리로다
배송하고 도라와서 삼일이 지낸후에
부억에 들어가니 탕관하나 사발두었
소슬냉각 가히없네 나무와쌀 찬물없이
부모봉양 어찌하리 천황씨 서방님은
글밖에 무엇아랴 박갓사랑 시부님은
조석분별 모르는체
가만히 앉았자니
난처한일 두루만다 첫째로는 시부모요
둘째로는 남편이라 위친의 불고염치
잔사정 다떨치고 영매을 급히불러
이웃집에 보냈더니 돌아서 하는말이
먼저곤쌀 얹이갑고 무슨염체 또보냈노
두말말고 바빠가라 내사정은 딱하나마
제것두고 애끼는걸 무엇이라 혐히하라
부끄럼을 자탄하고
그렇저렇 하노라니
해가벌써 낮이로다 함구석과 장구석을
무심히 뒤노라니 난대없는 돈열양이
손에집혀 만저진다 암아도 어머니니
가용쓰라 넣었도다 방갑기도 그지없고
김쁘기도 칭량없내 쌀팔고 반찬장만
나무사서 밥을지어 조석공양 하고나니
그식이 장식이라 일구월저 허다한날
이리하고 어이하리 분집하신 외장전답
추성후야 쌀올게요 시부모을 봉양하라
친정왕복 하라하니 친부모께 이우로다
시부모께 효는대나 친부모께 불효로다
에아서라 못하겠다 은을두고 굶을소냐
수식패물 전당하고 의상금침 전당하니
친정에서 여간구제 시루에 물붓기라
근근득생 지내갈제 일년추사 이년추사
그렇저렇 기넬라니 가련하다 천금전장
과거보기 다팔었다 팔자불행 대소과을
매방초시 무삼일고 사시장천 고은의복
무었으로 지당하리 허리띠 열두죽은
버선짓기 다드려가 여간쌀되 밥을한들
부모남편 건저괴고 수삼노복 나와주니

나머글게 바이없다 헛두통이 나난고나
사랑에서 무삼일로 호기있게 하인불러
손님새분 와계시다 점심하고 술사오라
얼른하라 호령한다 시행을 하자하니
적수공권 할수없고 실행을 마자하니
사랑의 망신이라 생각다 할일없어
인두가위 전당하고 반찬사고 술을사다
손님대접 하였은들 사정없고 대중없다
그무없이 넉넉하여 이틀사흘 목은손임
말류키는 무삼일고 봉제사 접빈객을
일체로 일냈으나 없는터에 어찌하리
반갱겨오 정히차려 고축하고 잔올이니
일년일도 오는제사 이모양이 한심하다
죽은조상 섬기기를 산조상과 같이할제
없어서 잘못하니 황송하고 한심하다
분한심사 깨쳐내어 편한것을 잊으리라
비단치마 벗어놓고 행자치마 몸에감고
수당해도 벗어두고 석새집신 발에신고
은가락지 끼든손에 호미자루 원일인고
원장얹에 목은발을 풀을매고 기경하니
하인들도 병역하여 갖분것을 해지얹에
푸성귀 심어길러 장시가에 팔어오고
앞뒤논밭 경작하여 힘을써서 농사할제
수청반빚 쓸데없다 낮이되며 기음매고
밤이되면 물레질노 개와돛과 닭을길어
장시가에 팔어오고 뽕을따서 누에길러
실을나어 명주짜고 바느질품 수놀이와
초저녁에 등잔불로
세벽밥을 이어하고
콩나물죽 시락죽을 늘어먹고 알뜰하게
한푼두푼 주어모와 양이차고 관돈되니
돈백이나 넘엇고나 전당잡고 변리주어
시종여일 근농방직 생기는돈 두양이면
절용하여 한양쓰니 쓰고남는 재물모여
이삼천금 수삼년에 만여금이 되단말가
앞뜰에 논을사고 뒤뜰의 밭을사서
울을뜻고 담을싸며 개초것고 기와이니
하늘이 도왔던지 시집온지 십년만에

가산이 수만제라 내아모리 알뜰하고
부즈런이 했다한들 첫째로는 천우신조
집얇에 우환없고 둘째로는 친정덕택
셋째로는 하인의공 내덕될것 무엇이나
그만해도 한이없고 인제는 태평이라
세간을 모노라니 부모공양 못했으니
일념의 유한이라 이따금 고기사서
장조림도 하여놓고
생선사서 국끄리고
유장발러 구어눗고 가진것갓 원갓자반
칠첩반상 훌륭하다 누룩있고 쌀있으니
가양으로 수를비저 사이사이 벌미하며
일가친척 인리상하 것기하고 돌나주며
접빈객도 품비하고 봉제사도 넉넉하다
훈정신정 하올적에 밤도긋고 대초찌고
약과다식 잣박산과 여름의 제호탕과
겨울에는 전약이요 밤참으로 장국하고
주전자에 술을넣고
가즌찬합 안주로다
치운때는 었을고아 호초건강 개피넣고
연안배천 좋은쌀로 인절미 잘뭉기여
목침같이 잘너긋혀 모닥불에 흥신구어
강능백청 흘려넣어 동지장야 긴긴밤에
잠없을때 잠수시게 겨울에는 침지얇에
여름에는 덤지얇에 사철의복 갈마들여
지성공양 하여가니 자식마음 괴락커든
부모마음 어떨소냐 백년후 기제사에
만반진수 차려논들 먹은흔적 그뉘본고
여년부다 늙은부모 극진공양 하리로다
용전쌀 삼백석은 양미로 제쳐놓고
도지병작 이천석은 돈을사서 전장작만
모맥두태 서속집곡 삼간광에 채워놓고
일용부비 세간작만 적은것을 싸어모와
큰것을 이루오니 부자에도 큰부자라
첫딸놓고 아들낳아 유모대려 양육하고
침모드려 바누질과 비복하인 저저각각
소님말겨 분별하니 나할이리 바이업다
갑자구월 초구일에 침실에 드러누어

춘단이시켜 다리치고 옥단어미 책보이고
홀연히 잠이들어 정신이 혼혼터니
안과박이 요란하며 동배부른 한님엿주
백발시부 들어왔어 날을보고 말씀하되
이번과거 즉일방방 네남편 내아들이
장원급제 하였단다 효성지극 내며늘아
지금까지 내가살어 부귀공명 이런경사
애달플손 너의시모 삼사년만 살었더면
동회동락 하련마는 내마음이 섭섭거던
너의마음 오직하라 도문기구 차릴적에
제인광대 다섯시라 오색비단 가진치장
어전사면 흑개무동 전용후위 나울적에
어사화 두가지는 월궁에 계화로다
길사군악 영산회상 일동을 뒤집는다
안동방골 어한님 신내위이 하는소래
어업뿐 우리낭군 성적지분 기구하다
당분왜밀 었다두고 먹칠하고 밀가루칠
갓냥때고 모자떼고 똥개천의 가제잡고
땅에굴미 밤투정과 온갖장난 조롱하니
박장대소 경사인사 채못하여 실내위이
불러내이 김판서와 서승지라 도승지 사촌옵바
나를무삼 부르시노 괴덕스런 열촌동세
팔을잡고 진퇴한다 안밖으로 허다손님
차담상도 풍비하다 초입사에 주서한림
결군으로 안변부사 승지당상 동래부사
물망으로 평안감사 국은이 망극하다
쌍가마 외방바람 부영처귀 더욱좋다
아들형제 진사급제 가문도 혁혁하다
딸을길러 출가할제 혼수범절 거룩하다
남노여비 나너주고 전답도 분깃하다
올해는 이천전장 삼백석 받는것과
돈도지 오백냥은 소용차로 유념하니
나올때을 생각하면 너는무한 복이로다
우귀하여 가는길에 손을잡고 하는말이
여자의 제일행실 효순부모 으뜸이요
효봉구고 승순군자 옛서인의 경계로다
악한일을 부디말고
악한말을 부디마라

내신세에 해가되고 제신세에 안치나니
날짐생 길짐생도 옥설악담 부디마라
신님하는 종이라도 모진말을 부대마라
지아비는 하늘이요 지어미는 땅이로다
말리장천 높은하늘 땅이어데 겨를소냐
남편이 어리다고 부대수이 보지마라
의복음식 범어사에 뜻을받아 순이하고
성을내면 웃음이요 재겸이 많아하고
교만한체 부대마라 천자라도 망한단다
줄만하여 주어놓고 공치사 부대마라
누우친말 하지말고 승기자를 시기말고
첩에게 투기말고 아모리 덤더래도
남편앞에 벗지말며 정이있다 흥모르랴
시부모를 봉양하기 친부모와 다를소냐
친모녀간 흥이없고 웅석도 하여보고
생부적도 하거니와 시부모는 다르니라
아모리 사랑해도 행어나 실례하나
닭짐생과 개짐생도
부모가 귀하거든
나도같이 사랑하고 식성을 모르거던
시누에게 물어보고 돈돈푼푼 싸리라도
눈기여서 버릇마라 어둔밤 후정출입
불없이 가지말고 일가친척 서로볼대
부대흔자 보지마리 시댁외정 수숙간에
주고받기 부대마라 정답다고 상하간에
헛웃음 웃지마라 한번보고 두번보면
자연구더 수이한다 행동거지 처신범절
부대신중 조심해라 내용가져 나하는일
값이들고 힘이드냐 의복부대 정히입고
혈다고 타박마라 고은것만 취티마라
굶은베겸 질기니라 혈벗으니 웃지말고
웃가지나 적선하고 굶은사람 흥을말고
밤을주어 구제하라 자식날다 믿지마라
진나부도 소박맛고 여간제물 거죽계라
소현부도 쫓겨났다 무정지책 듣더라도
구태여 변명말고 고개숙여 잠잠하며
어른도 징간하여 애매할줄 나타난다
도로혀 누우쳐서 애중지심 더하나니

일일이 조심하라 어찌하다 한번잘못
잘한일은 칭찬없고 잘못된일 꾸중난다
사람대라 꾸중커던 부대노여 하지마라
그대로 실행하며 효부도리 으뜸이라
집안계와 닭짐생도 부모앞에 치지마라
어른마음 민망하다 비복들을 경계할때
부대소리 크게마라 여자의 말소리가
행여밖에 들릴세라 신을끌고 기침하고
자취있게 문을열고 급한일이 잇드레도
다름박질 하지마라 어른이 부르시나
남편이 부르거나 첫마디에 대답하고
지채말고 들어가며 남과서로 말할때도
귀는항상 떠대두고
어른앞에 말의말삼
한눈부대 파지마라 빈방앞에 혼자있어
군소리를 하지마라 청승곳은 남의팔자
행여내게 도라올나 제몸부대 추지마라
남이듯고 비웃는다 없는서름 자어내면
오든복도 도루간다 무슨수심 잇드래도
웃는빛을 나타내라 근심가고 복이온다
친정생각 하는근심 행여시모 배울새라
극란하다 어린시늬
일일이 정을부처
푸점없이 하지마라 색실헌겁 달나거던
시행하고 엽다마라 말을부대 삼가하여
시비대게 하지마라 손그릇에 없는것을
시동생께 지목마라 대초하나 밤하나도
난와주면 감동한다 중난하다 이간지설
아른채 부대마라 문틈으로 엿보기와
창밖에서 엿듯기는 간악소인 할일이라
부정할가 조심하고 손님대접 하올적에
인색한걸 배지말고 오라범덕 잘한는일
역역히 배와두고 철모르는 시늬동생
친형제로 생각하고 오즘똥코 침이라도
추타말고 씻어주고 치워할가 더워할가
목마를가 배고플가 자식같이 귀히길러
철이들고 성취하면 그공로를 아니니라
어른들이 시키는일 부대거역 하지마라

안짐안짐 할지라도 흠쳐사고 정히얏아
 매무시기 꼭꼭해라 허리동이 드러날라
 가간의 시비지사 혀끝으로 나르니라
 귀향가신 김교리와 쫓겨나온 이서방덕
 말을삼가 하였으며 저지경을 당할소냐
 남의흥을 보지마라 제흥도 나느니라
 세상에 무서운게 사람밖에 또있는냐
 평생을 조심하라 신임하는 노복들도
 배신하면 어렵도다 이웃집의 꾀오는말
 시비지단 되느니라 귀먹은체 병어린체
 내부모 섬기는맘 남의부모 공경하라
 되는사람 보고들랑 내일같이 즐겨하고
 그른노릇 부대마라 귀신은 기록한다
 악한마음 먹으면은 악신들이 뒤따르고
 착한마음 먹게대면 길신들이 호위한다
 악한사람 잘댄단말 차고지금 못들었다
 착한사람 못된단말 그누구가 들었는가
 제생전에 못받으면 자손에게 나리느니
 이새상에 부귀빈천 적선적악 후근이라
 천지간에 못쓸것이 게으른게 큰힘이라
 밤들제 잠을자고 새벽에는 일어얏아
 머리빗고 세수하고 방과마루 정히쓸고
 고양부역 두루살펴 있나업나 해아리고
 조상전내 기명새간 깨질새라 간수하고
 일가어른 오시거던 뜰에나려 인사하고
 부모출입 하시거던 맞아들려 절을하고
 알건채는 하지마라 모르는것 못는것을
 부끄럽게 하지마라 혼자소견 주장하면
 랑폐댄일 많으니라 노소간의 랑속들의
 그른행실 볼지라도 한번참고 두번만에
 불너새고 경계하여 개과천선 하게하고
 일러서도 안들으면 엄절이 치죄하고
 잔걱정은 부대마라 극난하다 살림사리
 잘지내고 못살기가 안규모에 있나이라
 가산이 만금이나 남용낭비 하게대면
 불수년에 실패한다 후일에 뉘우친들
 폐간새간 다시오라 더럽고 천한것이
 가난밖에 또있은야 이틀사흘 굶은사람

부모처자 몰나본다 집안이 구차한대
어진안해 생각난말 일로두고 한말이라
여자들의 삼종지에 너도들어 알거니와
어려서는 부모쫓고 출가하면 남편쫓고
늙어지면 자식쫓차 출가후면 여필종부
남편이 재일이요 부모도 둘제로다
여자로 생겨났어 출가하면 외인이라
부모천륜 중한의가 부부정만 못하니라
부인의 칠거지악 네모를것 아니로대
말말끝에 또들어라 제행실이 좋다해도
병이있으면 쫓는거요 재아모리 잘났어도
사덕이 견비하나 무자하면 쫓는거요
첩의관계 투기하면 리가변해 쫓는거요
백집사가 가감이나 음행하면 쫓는거요
내집에나 남에게나 절도하면 쫓는거요
일가족속 남남끼리 말 많으면 쫓는니라
시부모의 하는교훈 각별명심 잊지마라
한두번 하신말삼 시행치 아니하면
구중걱정 듣느니라
천생요약 못된것은
잔걱정도 한다하고 돌아서서 종알종알
발근발근 성을내며 어릿것도 때려주고
하인에게 푸념하면 집안이 되겄는가
하늘아래 그른부모 잇다말 못들었다
나의시집 사든말을 또읽을게 들어바라
호의호식 자란몸이 안목인들 범연하랴
삼승목과 속새벼를 곱다하고 칭찬키는
시댁을 위함이요 기울고 푸른사발
좋다고 간직키는 뜻을순히 받음이라
친정말 하느니라 시집말도 하느니라
또한말 네들어라 아들낳도 자식이요
딸을낳도 자식이라 아들나면 기뻐하고
딸낳다면 섭섭하다 아들자식 내것이요
딸자식은 남의것이 될줄알아 길을대은
애지중지 길너내여 출가하여 보낸후에
우귀한후 그날부터 밤낮으로 근심이요
자식두셋 낳다해도 시시때때 근심이요
부모근심 하는줄을 딸자식이 안다더냐

나는교훈 잘했으나 제의행실 어떠할가
사돈댁과 이웃사람 볼때마다 겁이난다
저하는말 반신반이 못믿겠다 너의일생
그러기에 딸둔부모 죄인이라 부모공을
알라하면 자식낳서 길어바야 부모공을
아나이래 고금새상 남여간에 널리듣고
많이바야 세상에서 행세할수 있나이래
끝

겨오년 정월 일

[현대역]

김씨효행가

어화 세상에 경향(京鄕)1을 막론하고
시집 안 간 규중(閩中)2 처녀 출가한 젊은 부녀
이 내 말씀 들어 보소 내 몸이 여자 되어
김한림(翰林)의 종손녀(從孫女)3요 정학사(學士)의 외손이라
열녀전4 효경편5을 십삼 세에 능통하고
침선방직(針線紡織)6 여공(女功)7 범절(凡節)8 십사 세에 성취(成就)하니
행동거지 처신 범절 누가 아니 칭찬할까
악한 사람 경계하고 착한 사람 본을 받아
부모에게 화용(花容)9 유색(愉色)10 노복(奴僕)에게 은언(恩言)11 순사(順事)12
부모님이 시키신 일 순수(順受)13하야 승명(承命)14하고
언어 행동 삼가니 꾸중 걱정 못 들었고
비복(婢僕)15들의 잘못된 일 좋은 말로 경계하고
옳은 도(道)로 가르치니 원망 혐의 있겠느냐
일가친척 칭찬하고 남녀노복 기리는 말
천상(天上) 선녀(仙女) 우리 소저 임사지덕(姪奴之德)16 가졌으니
오복(五福)구천 하리로다 금의옥식(錦衣玉食)17 곱게 자라
십오 세가 겨우 되어 강호(江湖)18에 출가하니
김판부의 종손부라 혼행(婚行)19 위의(威儀) 멋있구나
거리거리 구경꾼들 누가 아니 흠송(欽頌)20할까
풍류남자(風流男子)21 오라버님 배행(陪行)22 기구 화려하다
신행(新行)23길 수삼 일에 강호에 득달(得達)하니24
시덕이 어디쯤이나 주름 속으로 잠깐 보니
청강변(淸江邊)25에 수간(數間)26 두옥(斗屋)27 동으로 쓰레하고28
서로 기울어져
집모양도 가련하다
반벌(班閼)29은 줄건마는 가세(家勢)가 구간(苟艱)하니30
신행(新行)의 허다 하인 밥인들 먹이겠는가
합거지31 수팔연(壽八蓮)32과 은쟁반의 폐백조(幣帛棗)33를
도로혀 무색하다 현구고(見舅姑)34 폐백 후에
눈을 감고 앉았으니 구경꾼 늙은 할미
수군 속덕 하는 말이 곱고 귀하게 기른 남자
간고(艱苦)한35 이 시집을 배고파 어찌 살고
극난(極難)36하다 혼인이여 저다지도 속았는가
하루 밤을 지낸 후에 혼행 하인 회정(回程)37할 때
오라버니 나를 보고 비창(悲愴)38하여 하는 말이

가세(家勢)가 이러하니 하릴없다 도로 가자
애지중지 우리 누이 금옥 같은 우리 누이
부귀(富貴) 생장(生長) 우리 누이 악의악식(惡衣惡食)³⁹ 못 보았고
빈궁기한(貧窮飢寒) 몰랐으니 이 고생을 어찌할까
남매간 깊은 정이 차마 두고 못 가겠다
여보세요 오라버니
이 말씀이 웬 말이요
여자가 출가하면 부모 형제 멀어지고
혼인의 재물(財物) 의논(議論) 오랑캐의 풍속이라
빈부궁달(貧富窮達) 각유시(各有時)⁴⁰니 시덕이 간구⁴¹하단 말
부모 전에 부디 마오 부모님 들으시면
침식(寢食) 불안 걱정 되어 불효 될까 염려 되니
좋은 말로 아뢰소서 부모님 들으시면
방심(放心)⁴² 쾌락(快樂) 하실 것이라 부모 마음 편하시면
이것 또한 효성이라
수간(數間)⁴³ 두옥(斗屋)⁴⁴ 허술하나
구고(舅姑)⁴⁵ 계신 내 집이요 화당금옥(華堂金屋)⁴⁶ 좋은 집은
부모 계신 집이로다 하늘이 정한 팔자(八字)
순수(順受)⁴⁷하면 복이 되어 빈희위부⁴⁸ 될 것이오
시집살이 심하여도 매사(每事)가 내게 있어
부모님의 뜻을 받아 효성지극(孝誠至極) 봉양(奉養)하면
도로혀 감동하시어 기특하다 사랑하시니
아무 염려 마시고 그런 말씀 다시 마소
오라버님 하는 말이
무던하다 네 말이여
요조속녀(窈窕淑女)⁴⁹ 몰랐더니 지금에야 보는구나
효행(孝行)이 저러하니 복록(福祿) 무궁(無窮) 할 것이다
배송(陪送)⁵⁰하고 돌아와서 삼일이 지난 후에
부엌에 들어가니 탕관(湯罐)⁵¹ 하나 사발 두엇
소슬(蕭瑟)⁵² 냉각 가히 없네 나무와 쌀 찬물(饑物)⁵³ 없이
부모 봉양 어찌할까 천황씨(天皇氏)⁵⁴ 서방님은
글밖에 무엇 알까 바깥 사랑(舍廊)⁵⁵ 시부(媳父)님은
조석(朝夕) 분별 모른 채
가만히 앉았자니
난처한 일 두루 많다 첫째로는 시부모요
둘째로는 남편이라 위친(爲親)⁵⁶의 불고(不顧)⁵⁷ 염치(廉恥)
잔 사정 다 떨치고 영매를 급히 불러
이웃집에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먼저 끈 쌀 아니 값고 무슨 염치 또 보냈나
 두말 말고 바빠 가라 내 사정은 딱하지만
 제 것 두고 아끼는 걸 무엇이라 혐의(嫌疑)58하라
 부끄러움을 자탄(自歎)59하고
 그렇저런 하노라니
 해가 벌써 낮이로다 함(函) 구석과 장(幟) 구석을
 무심히 뒤지노니 난데없는 돈 열 냇이
 손에 잡혀 만져 진다 아마도 어머니가
 가용(家用)60쓰라 넣었도다 반갑기도 그지없고
 기쁘기도 칭량61 없네 쌀 사고62 반찬 장만
 나무 사서 밥을 지어 조석(朝夕) 공양(供養) 하고 나니
 기식(飢食)63이 상식(常食)64이라 일거월저(日居月諸)65 허다한 날
 이리하고 어이 하리 분집(分執)66하신 외장(外庄)67 전답(田畝)
 추성(秋成)68 후야 쌀을 일어 시부모(媳父母)를 봉양하라
 친정 왕복(往復) 하라 하니 친부모께 이우(貽憂)69로다
 시부모께 효는 되나 친부모께 불효로다
 에 아서라 못 하겠다 은을 두고 굶을소나
 수식(首飾)70 패물(佩物) 전당(典當)하고 의상(衣裳) 금침(衾枕)71 전당하니
 친정에서 여간(如干) 구제(救濟) 시루에 물 붓기라
 근근득생(僅僅得生)72 지나갈 때 일년추사(一年秋事)73 이년추사(二年秋事)
 그렇저런 지내려니 가련하다 천금(千金) 전장(田莊)74
 과거 보는 데 다 팔았다 팔자 불행 대소과(大小科)75를
 매방초시(每榜初試)76 무슨 일인가 사시(四時) 장천(長川)77 고운 의복
 무엇으로 지탱할까 허리띠 열두 죽78은
 버선 짓는 데 다 들어가 여간 쌀 되 밥을 한들
 부모 남편 건져 드리고 수삼 노복 나누어 주니
 나 먹을 게 전혀 없다 헛두통이 나는구나
 사랑에서 무슨 일로 호기(豪氣) 있게 하인 불러
 손님 세 분 와 계신다 점심하고 술 사와라
 얼른 하라 호령(號令)한다 시행(施行)을 하자 하니
 적수공권(赤手空拳)79 할 수 없고 실행을 마자 하니
 사랑의 망신이라 생각하다 하릴없어
 인두80 가워 전당하고 반찬 사고 술을 사다
 손님 대접 하여본들 사정없고 대중없다
 그 무엇이 넉넉하여 이틀 사흘 묵은 손님
 만류(挽留)하기는 무슨 일인가 봉제사(奉祭祀)81 접빈객(接賓客)82을
 일체(一體)로 일렀으나 없는 터에 어찌 할까
 반갱(飯羹)83 겨우 정(淨)히 차려 고축(告祝)84하고 잔 올리니

일년일도(一年一度)85 오는 제사 이 모양이 한심하다
 죽은 조상 섬기기를 산 조상과 같이할 때
 없어서 잘못하니 황송하고 한심하다
 분한 심사 깨쳐 내어 편한 것을 잊으리라
 비단치마 벗어 놓고 행주치마 몸에 감고
 수당혜(繡唐鞋)86도 벗어 두고 석새짚신87 발에 신고
 은가락지 끼든 손에 호미자루 웬 일인고
 원장(垣牆)88 안에 묵은 밭을 풀을 매고 기경(起耕)89하니
 하인들도 병력(竝力)90하여 가쁜91 것을 마다 않아
 푸성귀 심어 길러 장시(場市)92가에 팔아 오고
 앞뒤 논밭 경작하여 힘을 써서 농사할 제
 수청(守廳)93 반(飯)빚94 쓸데없다 낮이 되면 김매고
 밤이 되면 물레질로 개 돼지와 닭을 길러
 장시가(場市)에 팔아 오고 병을 따서 누에 길러
 실을 내어 명주 짜고 바느질품95 수놓기와
 초저녁에 등잔불로
 새벽밥을 이어하고
 콩나물죽 시래기죽(粥)96을 늘어 먹고 알뜰하게
 한 푼97 두 푼 주어 모와 냥98이 차고 관(貫)99돈 되니
 돈 백이나 넘었구나 전당 잡고 변리100 주어
 시종여일(始終如一)101 근농(勤農) 방직(紡織) 생기는 돈 두 냥이면
 절용(節用)102하여 한 냥 쓰니 쓰고 남는 재물 모여
 이상천 금 수삼 년에 만여 금이 되었던 말인가
 앞뜰에 논을 사고 뒤뜰에 밭을 사서
 울을 뜯고 담을 싸며 개초(蓋草)103 걷고 기와 이니
 하늘이 도왔던지 시집온 지 십 년 만에
 가산(家産)이 수만 재(財)라 내 아무리 알뜰하고
 부지런히 했다 한들 첫째로는 천우신조(天佑神助)104
 집안에 우환(憂患) 없고 둘째로는 친정 덕택(德澤)
 셋째로는 하인의 공 내 덕 될 것 무엇이나
 그만해도 한이 없고 이제는 태평이라
 세간을 모으노라니 부모공양 못했으니
 일념의 유한(有恨)이라 이따금 고기 사서
 장조림도 하여 놓고
 생선 사서 국 끓이고
 유장(油醬)105 발라 구어 놓고 가진 젓갈 온갖 자반
 칠(七)첩 반상(飯床)106 훌륭하다 누룩 있고 쌀 있으니
 가양(家釀)107으로 술을 빚어 사이사이 별미(別味)하며

일가친척 인리(隣里)108상하 것이하고 돌려주며
 접빈객(接賓客)도 풍비(豐備)109하고 봉제사(奉祭祀)도 넉넉하다
 혼정신정(昏定晨省)110 하올 적에 밤도 굶고 대추 찌고
 약과(藥果) 다식(茶食) 잿박산(薄餼)111과 여름의 제호탕(醞醐湯)112과
 겨울에는 전약(煎藥)113이요 밤참으로 장(醬)국하고
 주전자에 술을 넣고
 갖은 찬합(饌盒)114 안주로다
 추운 때는 엿을 고아 호초(胡椒)115 건강(乾薑)116 계피(桂皮)117 넣고
 연안(延安)118 배천 좋은 쌀로 인절미 잘 뭉개
 목침(木枕)같이 잘라 굳혀 모닥불에 흠씬 구어
 강릉 백청(白淸)119 흘려 넣어 동지장야(冬至長夜)120 긴긴밤에
 잠 없을 때 잠수시게 겨울에는 춥지 않게
 여름에는 덥지 않게 사철 의복 갈마들여121
 지성(至誠) 공양(供養) 하여 가니 자식 마음 쾌락(快樂)커든
 부모 마음 어떨 것이냐 백 년 후 기제사(忌祭祀)122에
 만반진수(滿盤珍羞)123 차려 놓은들 먹은 흔적 그 뉘 본고
 여년(餘年)124 부다(不多) 늙은 부모 극진(極盡) 공양 하리로다
 용전(傭田)125쌀 삼백 석은 양미126로 제쳐 놓고
 도지(賭地)127 병작(竝作)128 이천 석은 돈을 사서 전장(田莊)129 장만
 모맥(牟麥)130 두태(豆太)131 서숙132 잡곡 삼간(三間) 광에 채워 놓고
 일용(日用) 부비(浮費)133 세간 장만 작은 것을 쌓아 모아
 큰 것을 이루오니 부자에도 큰 부자라
 첫딸 낳고 아들 낳아 유모에게 양육케 하고
 침모(針母)134 들어 바느질과 비복(婢僕) 하인 저저각각
 소임 맡겨 분별하니 나 할 일이 전혀 업다
 갑자 구월 초구일에 침실에 드러누워
 춘단이 시켜 다리 치게 하고 옥단 어미 책 보이고
 홀연히 잠이 들어 정신이 혼혼(昏昏)하더니135
 안과 밖이 요란하며 동배 부른 한님였주
 백발 시부(媳父) 들어와서 날을 보고 말씀하되
 이번 과거 즉일방방(卽日放榜)136 네 남편 내 아들이
 장원급제 하였단다 효성 지극 내 며느리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 부귀공명 이런 경사
 애달픈 것은 너의 시모(媳母) 삼사 년만 살았다면
 동희동락(同喜同樂)137 하련마는 내 마음이 섭섭한데
 너의 마음 오죽하라 도문(到門)138 기구(器具)139 차릴 적에
 재인(才人) 광대(廣大) 다섯이라 오색 비단 갖은 치장
 어전 사면 흑개(黑蓋)140 무동141 전용후위 나올 적에

어사화(御史花) 두 가지는 월궁(月宮)142에 계화(桂花)143로다
 길사군악144 영산회상(靈山會相)145 일동을 뒤집는다
 안동방골 어한님 신내 위이 하는 소리
 어여쁜 우리 낭군 성적(成赤)146 지분(脂粉)147 기구하다
 당분(唐粉)148 왜(倭)밀149 어디에 두고 먹칠하고 밀가루 칠
 갓양150 떼고 모자 떼고 뚱개천의 가재 잡고
 땅에 구르며 밥투정과 온갖 장난 조롱하니
 박장대소(拍掌大笑) 경사(慶事) 인사 채 못하여 실내위이
 불러내니 김판서와 서승지라 도승지 사촌오빠
 나를 왜 부르시나 괴덕스런151 십촌 동서
 팔을 잡고 진퇴(進退)한다 안팎으로 허다(許多) 손님
 차담상(茶啖床)152도 풍비(豐備)하다 초입사(初入仕)153에 주서154 한림(翰林)155
 걸군(乞郡)156으로 안변(安邊)157 부사(府使) 승지(承旨) 당상(堂上)158 동래(東萊) 부사
 물망(物望)으로 평안(平安) 감사(監司) 국은(國恩)159이 망극(罔極)하다
 쌍가마160 외방(外方)161 바람 부영(富營)162 처귀 더욱 좋다
 아들 형제 진사 급제 가문도赫赫(赫赫)하다
 딸을 길러 출가할 제 혼수(婚需) 범절(凡節) 거룩하다
 남노여비 나눠주고 전답도 분(分)깃하다163
 올해는 이천164 전장(田莊) 삼백 석 받는 것과
 돈도지165 오백 냥은 소용(所用)차로 유념하니
 나올 때를 생각하면 너는 무한 복이로다
 우귀(于歸)166하여 가는 길에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여자의 제일 행실 효순부모(孝順父母) 으뜸이요
 효봉구고(孝奉舅姑)167 승순군자(承順君子)168 옛 성인의 경계로다
 악한 일을 부디 말고
 악한 말을 부디 마라
 내 신세에 해가 되고 제 신세에 안치나니169
 날짐승 길짐승도 욕설 악담 부디 마라
 신임(信任)하는 종이라도 모진 말을 부디 마라
 지아비는 하늘이요 지어미는 땅이로다
 만리장천(萬里長天) 높은 하늘 땅이 어디 겨루겠는가
 남편이 어리다고 부디 쉽게 보지 마라
 의복음식 범어사(凡於事)170에 뜻을 받아 순(順)히 하고
 성을 내면 웃음이요 제 것이 많다 하고
 교만한 체 부디 마라 천자라도 망한단다
 줄만하여 주어 놓고 공치사 부디 마라
 뉘우친 말 하지 말고 승기자(勝己者)171를 시기(猜忌) 말고
 첩에게 투기 말고 아무리 덤터라도

남편 앞에 벗지 말며 정이 있다 흥 모르라
시부모를 봉양하기 친부모와 다르겠느냐
친모녀 간 흥이 없고 음식도 하여 보고
생부적도 하거니와 시부모는 다르니라
아무리 사랑해도 행여나 실례할까
닭 짐승과 개 짐승도
부모가 귀하거든
나도 같이 사랑하고 식성을 모르거든
시누이에게 물어보고 돈돈172 푼푼173 쌀이라도
눈 기여서174 버릇 마라 어둔 밤 후정(後庭) 출입
불 없이 가지 말고 일가친척 서로 볼 때
부디 혼자 보지 마라 시댁 외정(外丁)175 수숙(嫂叔)176 간에
주고받기 부디 마라 정답다고 상하 간에
헛웃음 웃지 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연 굳어 쉽게 한다 행동거지 처신(處身) 범절
부디 신중 조심해라 내 몸 가져 나 하는 일
값이 들고 힘이 드냐 의복 부디 정(淨)히 입고
헐었다고 타박 마라 고운 것만 취(取)치 마라
굵은 베옷 질기니라 헐벗은 이 웃지 말고
웃가지나 적선(積善)177하고 굶은 사람 흥을 말고
밥을 주어 구제하라 자식 낳았다고 믿지 마라
진나부(秦羅敷)178도 소박(疏薄) 맞고 여간(如干) 재물 거짓이라
소현부도 쫓겨났다 무정지책(無情之責)179 듣더라도
구태여 변명 말고 고개 숙여 잠잠하며
어른도 징간(徵看)180하여 애매할 줄 나타난다 徵驗
도로혀 뉘우쳐서 애중지심(愛重之心)181 더하나니
일일이 조심하라 어찌하다 한 번 잘못
잘한 일은 칭찬 없고 잘못된 일 꾸중 난다
사람 되라 꾸중커든 부디 노여워하지 마라
그대로 실행하면 효부(孝婦)182 도리 으뜸이라
집안 개와 닭 짐승도 부모 앞에 치지 마라
어른 마음 민망하다 비복(婢僕)들을 경계할 때
부디 소리 크게 마라 여자의 말소리가
행여 밖에 들릴세라 신을 끌고 기침하고
자취183 있게 문을 열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달음박질 하지 마라 어른이 부르시나
남편이 부르거나 첫마디에 대답하고
지체(遲滯) 말고 일어 가며 남과 서로 말할 때도

귀는 항상 딴 데 두고
어른 앞에 말의 말씀
한눈 부디 팔지 마라 빈 방 안에 혼자 있어
군소리를 하지 마라 청승곳은184 남의 팔자
행여 내게 돌아올라 제 몸 부디 추지185 마라
남이 듣고 비웃는다 없는 설움 자아내면
오던 복도 도로 간다 무슨 수심(愁心) 있더라도
웃는 빛을 나타내라 근심 가고 복이 온다
친정 생각 하는 근심 행여 시모 보일세라
극난(極難)하다186 어린 시누이
일일이 정을 부쳐
푸점187 없이 하지 마라 색실 형겅 달라거든
시행하고 없다 마라 말을 부디 삼가
시비(是非) 되게 하지 마라 손그릇188에 없는 것을
시동생께 지목(指目)마라 대추 하나 밤 하나도
나줘 주면 감동한다 중난(重難)하다189 이간지설(離間之說)190
아는 체 부디 마라 문틈으로 엿보기와
창밖에서 엿듣기는 간악(奸惡) 소인(小人) 할 일이라
부정(不淨)할까 조심하고 손님 대접 할 때에
인색한 것을 배우지 말고 오라버니덕 잘하는 일
역력(歷歷)히191 배워두고 철모르는 시누이 동생
친형제로 생각하고 오줌 똥 코 침이라도
추하다 말고 씻어주고 추워할까 더워할까
목마를까 배고플까 자식같이 귀하게 길러
철이 들고 성취하면 그 공로를 안 잊느니라
어른들이 시키는 일 부디 거역 하지 마라
안짐안짐 할지라도 흠처(欠處)192 사고 단정히 앓아
매무새 꼭꼭 해라 허리동이 드러날라
가간(家間)193의 시비지사(是非之事)194 혀끝으로 나느니라
귀양 가신 김교리(校理)195와 쫓겨나온 이서방 댁
말을 삼갔으면 저 지경을 당하겠느냐
남의 흉을 보지마라 제 흉도 나느니라
세상에 무서운 게 사람밖에 또 있느냐
평생을 조심하라 신임(信任)하는 노복들도
배신하면 어렵도다 이웃집의 꾀는 말
시비지단(是非之端)196 되느니라 귀먹은 체 병어린 체
내 부모 섬기는 맘 남의 부모 공경(恭敬)하라
되는 사람 보거들랑 내일같이 즐겨 하고

그른 노릇 부디 마라 귀신은 기록(記錄)한다
악한 마음 먹으면 악신(惡神)들이 뒤따르고
착한 마음 먹게 되면 길신(吉神)들이 호위(護衛)한다
악한 사람 잘되었단 말 자고지금(自古至今)197 못 들었다
착한 사람 못 된단 말 그 누가 들었는가
제 생전에 못 받으면 자손에게 내리느니
이 세상에 부귀빈천(富貴貧賤) 적선(積善)198 적악(積惡)199 후근(後根)이라
천지간(天地間)에 몹쓸 것이 게으른 게 큰 흠이라
밤들 제 잠을 자고 새벽에는 일어 앉아
머리 빗고 세수하고 방과 마루 정히 쓸고
고양 부엌 두루 살펴 있나 없나 헤아리고
조상 전래(傳來)200 기명(器皿)201 세간 깨질 세라 간수하고
일가(一家) 어른 오시거든 뜰에 내려 인사하고
부모 출입 하시거든 맞아들어 절을 하고
아는 체는 하지 마라 모르는 것 묻는 것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혼자 소견(所見) 주장하면
낭패(狼狽) 된 일 많으니라 노소(老少) 간의 낭속(廊屬)202들의
그른 행실 볼지라도 한 번 참고 두 번 만에
볼러 세우고 경계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203 하게 하고
일러서도 안 들으면 엄절(嚴切)하게204 치죄(治罪)205하고
잔걱정206은 부디 마라 극난(極難)207하다 살림살이
잘 지내고 못살기가 안 규모208에 있느니라
가산이 만금이나 남용(濫用) 낭비 하게 되면
불수년(不數年)209에 실패한다 후일(後日)에 뉘우친들
폐간 세간 다시 오랴 더럽고 천한 것이
가난밖에 또 있느냐 이틀 사흘 굶은 사람
부모 처자 몰라 본다 집안이 구차(苟且)210한데
어진 아내 생각한다는 말 이를 두고 한 말이라
여자들의 삼종지의211 너도 들어 알려니와
어려서는 부모 좃고 출가하면 남편 좃고
늙어지면 자식 좃아 출가 후면 여필종부(女必從夫)212
남편이 제일이요 부모도 둘째로다
여자로 생겨나서 출가하면 외인(外人)213이라
부모 천륜(天倫)214 중(重)한 의(義)가 부부 정(情)만 못하니라
부인의 칠거지악(七去之惡)215 네 모를 것 아니로되
말말끝에216 또 들어라 제 행실이 좋다 해도
병이 있으면 쫓는 거요 제 아무리 잘났어도
사덕(四德)217이 경비(兼備)하나 무자(無子)218하면 쫓는 거요

첩의 관계 투기(妬忌)하면 리(利)가 변(變)해 쫓는 거요
백집사가 가감(加減)이나 음행(淫行)219하면 쫓는 거요
내 집이나 남에게나 절도(竊盜)하면 쫓는 거요
일가족속(一家族屬) 남남끼리 말 많으면 쫓느니라
시부모의 하는 교훈 각별 명심 잊지 마라
한두 번 하신 말씀 시행하지 아니하면
구중 걱정 듣느니라
천생(天生) 요악(妖惡)220 못된 것은
잔걱정도 한다 하고 돌아서서 종알종알
발끈발끈221 성을 내며 어린 것도 때려주고
하인에게 푸념하면 집안이 되겠는가
하늘 아래 그른 부모 있다는 말 못 들었다
나의 시집 살던 말을 또 읽을게 들어봐라
호의호식(好衣好食)222 자란 몸이 안목(眼目)223인들 범연(泛然)하라224
삼승(三升)225 목226과 석새베227를 곱다 하고 칭찬하기는
시덕을 위함이요 기울고 푸른 사발
좋다고 간직하기는 뜻을 순(順)히 받음이라
친정 말 하는 이가 시집 말도 하느니라
또 한 말 네 들어라 아들 낳아도 자식이요
딸을 낳아도 자식이라 아들 나면 기뻐하고
딸 낳았다면 섭섭하다 아들자식 내 것이요
딸자식은 남의 것이 될 줄 알아 기를 때는
애지중지(愛之重之) 길러 내여 출가하여 보낸 후에
우귀(于歸)228한 후 그날부터 밤낮으로 근심이요
자식 두셋 낳았다 해도 시시때때 근심이요
부모 근심 하는 줄을 딸자식이 안다더냐
나는 교훈 잘했으나 저의 행실 어떠할까
사돈댁과 이웃 사람 볼 때마다 겁이 난다
저하는 말 반신반의(半信半疑) 못 믿겠다 너의 일생
그러기에 딸 둔 부모 죄인이라 부모 공(功)을
알려 하면 자식 낳아 길러 봐야 부모 공(功)을
아느니라 고금(古今) 세상 남녀 간에 널리 듣고
많이 봐야 세상에서 행세할 수 있느니라
끝
경오년(庚午年) 정월 일

[각주]

- 1) 경향(京鄕) : 서울과 시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 규중(閨中)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3) 종손녀(從孫女) : 형이나 아우의 손녀.
- 4) 열녀전(列女傳) : 중국 한(漢)나라의 유향(劉向)이 지은 책. 고대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는, 중국의 현모·열녀들의 약전(略傳), 송(頌), 도설(圖說)을 엮었음. 또는 열녀전(烈女傳)으로 열녀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
- 5) 효경(孝經篇) : 유교 경전의 하나인 효경(孝經).공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 내용을 기록한 책.
- 6) 침선방직(針線紡織) : 침선은 바느질, 방직은 실을 뽑아서 천을 짜는 것.
- 7) 여공(女功) : 예전에,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 8) 범절(凡節) :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 9) 화용(花容) :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
- 10) 유색(愉色) : 유쾌한 얼굴빛.
- 11) 은언(恩言) : 은혜로운 말인 뜻함.
- 12) 순사(順事) : 사물의 정상(情狀)에 따라 일을 처리함.
- 13) 순수(順受) : 순순히 받음.
- 14) 승명(承命) : 임금이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듦.
- 15) 비복(婢僕) :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6) 임사지덕(姪之德) : 태임(太任/太姪), 태사(太姒)의 덕이라는 말로, 후비(后妃)의 현숙(賢淑)한 덕행을 의미함. 태임은 주(周) 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로 문왕을 임신했을 때 태교를 잘 했다고 함. 태사는 문왕의 비이며 무왕(武王)의 어머니로 현부인(賢夫人)으로 칭해짐. 유향(劉向)의
- 17) 금의옥식(錦衣玉食) : 비단옷과 흰쌀밥이라는 뜻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르는 말.
- 18) 강호(江湖) : 현실을 등지고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여기서는 시골을 의미함.
- 19) 혼행(婚行) :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
- 20) 흠송(欽頌) : 우러러 칭송함. 또는 그런 칭송.
- 21) 풍류남자(風流男子) : 풍치가 있고 멋스러운 남자.
- 22) 배행(陪行) : 혼행(婚行)길에서 상객(上客)으로 따라 감.
- 23) 신행(新行) : 혼행(婚行).
- 24) 득달(得達)하다 : 목적인 곳에 도달하다. 또는 목적을 이룬다.
- 25) 청강변(淸江邊) :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
- 26) 수간(數間) : 집의 두서너 칸.
- 27) 두옥(斗屋) : 아주 작고 초라한 집.
- 28) 쓰레하다 : 쓰러질 듯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 29) 반발(班閥) : 양반의 문벌.
- 30) 구간(苟艱)하다 : 몹시 구차하고 가난하다.
- 31) 합거지 : 미상.
- 32) 수팔연(壽八蓮) : 굿할 때 젓상 음식에 꽂는 조화.

- 33) 폐백조(幣帛棗) : 폐백 때 사용하는 대추.
- 34) 현구고(見舅姑) : 신부가 예물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는 일.
- 35) 간고(艱苦) :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들.
- 36) 극난(極難) : 몹시 어려움.
- 37) 회정(回程) : 돌아오는 길에 오름. 또는 그런 길이나 과정.
- 38) 비창(悲愴) :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
- 39) 악의악식(惡衣惡食) : 너절하고 조잡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옷이나 음식.
- 40) 빈부궁달(貧富窮達)각유시(各有時) : 빈부(貧富)와 궁달(窮達)에는 각각 때가 있다는 말.
- 41) 간구(艱苟) : 가난하고 구차함.
- 42) 방심(放心) : 안심.
- 43) 수간(數間) : 집의 두서너 칸.
- 44) 두옥(斗屋) : 아주 작고 초라한 집.
- 45) 구고(舅姑) : 시부모.
- 46) 화당금옥(華堂金屋) :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
- 47) 순수(順受) : 순순히 받음.
- 48) 빈희위부 : 미상. 혹 이빈위부(移貧爲富)의 잘못으로서 가난함을 옮겨 부유하게 됨이라는 뜻이거나 빈희위부(貧喜爲富), 즉 가난했지만 기쁘게도 부유하게 됨이라는 뜻이 아닐까 함.
- 49) 요조숙녀(窈窕淑女) :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양전하고 정숙한 여자.
- 50) 배송(陪送) : 웃어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따라가서 전송함.
- 51) 탕관(湯罐) : 국을 끓이거나 약을 달이는 자그마한 그릇. 쇠붙이나 오지 따위로 만들며 흔히 손잡이가 달려 있음.
- 52) 소슬(蕭瑟)하다 :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53) 찬물(饌物) : 반찬거리가 되는 것. 또는 반찬의 종류.
- 54) 천황씨(天皇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12 형제가 각각 만 팔천 년 씩 왕 노릇을 하였다고 함. 천황씨 서방은 태평스러운 성격을 지닌 물정에 어두운 신랑을 비유하는 말.
- 55) 사랑(舍廊) :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 56) 위친(爲親) : 부모를 위함.
- 57) 불고(不顧) : 돌아보지 아니함.
- 58) 혐의(嫌疑) : 꺼리고 미워함.
- 59) 자탄(自歎) :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함.
- 60) 가용(家用) : 집안 살림에 드는 비용.
- 61) 칭량(秤量/稱量) : 저울로 무게를 닦.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헤아림.
- 62) 사고 : 원문은 '팔고'로 되어 있는데 이때 '팔고'의 의미는 '사다'[賈]가 됨.
- 63) 기식(飢食) : 끼니를 거르고 굶주림.
- 64) 상식(常食) : 늘 먹음. 또는 그런 음식. '기식이 상식이라'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의미인 듯함.
- 65) 일거월저(日居月諸) :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말함. '시경(詩經)' 패풍(邶風) 일월(日月)에 “해와 달이 하토를 굽어본다.(日居月諸 照臨下土)”라고 한 말에서 나왔음.
- 66) 분집(分執) : 종, 땅, 집 따위를 나누어 가짐.

- 67) 외장(外庄) :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소유의 논밭.
- 68) 추성(秋成) : 가을철에 온갖 곡식이 익음.
- 69) 이우(貽憂) : 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침.
- 70) 수식(首飾) : 여자의 머리에 꽂는 장식품.
- 71) 금침(衾枕) : 이부자리와 베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72) 근근득생(僅僅得生) : 근근이 살아가며'의 뜻인 듯함.
- 73) 추사(秋事) : 가을철에 하는 일. 일년추사(一年秋事)는 '일 년의 가을걷이' 정도의 의미인 듯함.
- 74) 전장(田莊) : 개인이 소유하는 논밭.
- 75) 대소과(大小科) :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를 아울러 이르는 말. 대과(大科)는 과거(科擧)의 문과와 무과를 소과(小科)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소과(小科)는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음.
- 76) 매방초시(每榜初試) : 과거(科擧)를 볼 때에, 초시(初試)에는 언제나 합격하지만 복시(覆試)에는 번번이 낙방함.
- 77) 장천(長川) : 주야장천(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
- 78) 죽 : 옷, 그릇 따위의 열 벌을 묶어 이르는 말. 옷, 그릇 따위의 열 벌을 묶어 세는 단위.
- 79) 적수공권(赤手空拳) :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80) 인도 : 바느질할 때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퍼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쓰는 기구. 쇠로 만들며 바닥이 반반하고 긴 손잡이가 달려 있음.
- 81) 봉제사(奉祭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 82) 접빈객(接賓客) : 손님을 접대함.
- 83) 반갱(飯羹) : 밥과 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
- 84) 고축(告祝) : 천지신명에게 고하여 뵈.
- 85) 일년일도(一年一度) : 일 년에 한 번.
- 86) 수당혜(繡唐鞋) : 수놓은 비단으로 신을 만든 당혜.
- 87) 석새짚신 : 총이 매우 성글고 굵은 짚신.
- 88) 원장(垣牆/垣墻) : 울타리.
- 89) 기경(起耕) : 논밭을 갈.
- 90) 병력(竝力) : 힘을 한데 모음.
- 91) 가쁜 : 힘에 겨운.
- 92) 장시(場市) : 조선 시대에, 보통 5일마다 열리던 사설 시장. 보부상이라는 행상이 있어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따위를 유통시켰다.
- 93) 수청(守廳) : 높은 벼슬아치 밑에서 심부름을 하던 일.
- 94) 반빚(飯-) : 예전에,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직책. 반빚아치. 반빚아치는 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여자 하인.
- 95) 바느질품 : 바느질을 해 주고 돈을 받아 생계를 잇는 일.
- 96) 시래기죽(粥) : 시래기를 삶아 물에 불렀다가 간장이나 된장을 넣고 쑨 죽.
- 97) 푼 : 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한 푼은 돈 한 닢을 이룸.
- 98) 냥(兩) : 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한 냥은 한 돈의 열 배임.

- 99) 관(貫) : 껌. 예전에,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 한 껌은 엽전 열 냇을 이룸.
- 100) 변리(邊利) :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 101) 시종여일(始終如一) :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음.
- 102) 절용(節用) : 아껴 씬.
- 103) 개초(蓋草) : 이엉.
- 104)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 105) 유장(油醬) : 기름과 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6) 칠첩반상(七-飯床) : 밥, 국, 김치, 장류, 조식 이외에 속채, 생채, 구이, 조림, 전유어, 마른반찬, 회 따위의 반찬을 담은 접시가 일곱인 밥상. 또는 그런 밥상에 쓰는 그릇 한 벌.
- 107) 가양(家釀) : 집에서 쓰려고 술을 빚음. 가양주(家釀酒).
- 108) 인리(隣里) : 이웃 마을.
- 109) 풍비(豐備) : 풍부하게 갖추.
- 110) 혼정신성(昏定晨省)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 111) 잣박산(薄餼) : 산자(餼子)에 잣을 쪼개 붙인 유밀과. 잣을 꿀이나 엿에 버무려 반듯반듯하게 만든 음식.
- 112) 제호탕(醞醐湯) : 오매(烏梅), 사인(沙仁), 백단향, 초과(草果)를 가루로 만들어 꿀에 재어 끓였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 청량제.
- 113) 전약(煎藥) : 동짓날에 먹는 음식의 하나. 쇠가죽을 진하게 고아서 꿀과 관계(官桂)·건강(乾薑)·정향(丁香)·후추 따위의 가루와, 대추를 찌서 체에 거른 고(膏)를 섞어 푹 끓인 후에 사기그릇에 담아 굳힘.
- 114) 찬합(饌盒) : 층층이 포갤 수 있는 서너 개의 그릇을 한 벌로 하여 만든 음식 그릇. 흔히 나들이할 때나 음식을 따로 낼 때 씬. 혹은 찬합에 담긴 음식.
- 115) 호초(胡椒) : 후추.
- 116) 건강(乾薑) : 말린 생강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위령(胃冷), 구토, 설사의 치료에 씬.
- 117) 계피(桂皮) : 육계나무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감기 해열제로 쓰며 지절통이나 복통에도 씬.
- 118) 연안(延安) : 황해도에 있는 읍. 연백평야의 중심지로, 농산물 유통이 발달하였고 온천이 있음. 연백군의 군청 소재지임. 면적은 21.64km².
- 119) 백청(白淸) : 빛깔이 희고 품질이 좋은 꿀.
- 120) 동지장야(冬至長夜) : 동짓달의 긴긴밤.
- 121) 갈마들다 : 서로 번갈아들다.
- 122) 기제사(忌祭祀) :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 123) 만반진수(滿盤珍羞) : 상 위에 가득히 차린 귀하고 맛있는 음식.
- 124) 여년(餘年) : 여생.
- 125) 용전(傭田) : 예전에, 부잣집에 가서 노동을 해 준 대가로 얻어 부치던 토지. 혹은 용전(傭錢)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품삯의 뜻임.
- 126) 양미(糧米) : 양식으로 쓰는 쌀.
- 127) 도지(賭地) :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이나 집터. 조선 후기에, 도지권의 대가로 생산물

의 25~33%를 소작료로 물던 정액제 소작 형태.

128) 병작(並作/并作) : 배메기. 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일.

129) 전장(田莊) : 개인이 소유하는 논밭.

130) 모맥(牟麥/麩麥) : 보리.

131) 두태(豆太) : 콩과 팥을 아울러 이르는 말.

132) 서속(黍粟) : 기장과 조를 아울러 이르는 말.

133) 부비(浮費) : 일을 하는 데 써서 없어지는 돈.

134) 침모(針母) : 남의 집에 매여 바느질을 맡아 하고 일정한 품삯을 받는 여자.

135) 혼혼하다(昏昏--) : 어두운 상태임. 도리에 어둡고 마음이 흐림.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희미함.

136) 즉일방방(卽日放榜) : 과거를 실시한 바로 그날로 방(榜)을 붙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 증서인 홍패(紅牌)나 백패(白牌)를 내려 주던 일.

137) 동희동락(同喜同樂) :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함.

138) 도문(到門) : 과거에 급제하여 홍패(紅牌)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던 일.

139) 기구(器具) : 세간, 도구, 기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예법에 필요한 것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형세.

140) 흑개(黑蓋) : 검은 사(紗)로 만든 양산 모양의 의장(儀仗).

141) 무동(舞童) : 조선 시대에, 궁중의 잔치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 농악대 · 걸립패 따위에서,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고 재주 부리던 아이. 북청 사자놀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하나. 둘째 마당인 사자놀이의 첫째 거리에 나오며 탈은 쓰지 않음.

142) 월궁(月宮) : 전설에서, 달 속에 있다는 궁전

143) 계화(桂花) : 계수나무의 꽃.

144) 길군악(-軍樂) : 조선 시대 십이 가사의 하나. 민요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중간에 입타령이 끼어 있음. 옛 취타곡(吹打曲)의 하나. 임금의 거동 때나 군대의 행진 때 연주되었음.

145) 영산회상(靈山會相) : 현악 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 거문고, 가야금, 양금, 해금 따위의 현악기를 위주로 하고 대금, 세피리, 단소 따위의 관악기를 곁들인, 우아하고 섬세한 곡. 상영산 · 중영산 · 잔영산 · 가락달이 · 삼현 도드리 · 하현 도드리 · 영불도드리 · 타령 · 군악의 아홉 대목으로 이루어진다.

146) 성적(成赤) : 혼인날 신부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는 일.

147) 지분(脂粉) : 연지(臙脂)와 백분(白粉)을 아울러 이르는 말.

148) 당분(唐粉) : 중국에서 산출되는 순백색(純白色)의 건축 도료(塗料). 여기에서는 사람이 바르는 화장품인 듯함.

149) 왜밀(倭-) : 왜밀기름. 향료를 섞어서 만든 밀기름.

150) 갓양 : 갓양태. 갓모자의 밑 둘레 밖으로 둥글넓적하게 된 부분.

151) 괴덕스럽다 : 말이나 행동이 실없고 수선스러워 미덥지 못함.

152) 차담상(茶啖床) :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茶菓) 따위를 차린 상.

153) 초입사(初入仕) : 처음으로 벼슬을 함. 또는 그 벼슬.

154) 주서(注書) : 고려 시대에, 내사성 또는 중서성에 속한 종칠품 벼슬. 뒤에 도첨의주서, 문하주서, 첨의주서 따위로 여러 번 고쳤음. 조선 전기에, 문하부에 속한 정칠품 벼슬. 당후관을 고친 것.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정칠품 벼슬. 승정원의 기록, 특히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알아보았음.

- 155) 한림(翰林) : 고려 시대에, 학사원·한림원에 속한 정사품 벼슬. 임금의 조서를 짓는 일을 맡아보았음. '예문관 검열'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 156) 걸군(乞郡) : 조선 시대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하여 고향의 수령 자리를 청하던 일.
- 157) 안변(安邊) : 함경남도 안변군에 있는 면. 경원선과 동해 북부선이 나뉘는 곳으로, 사과·배가 남.군청 소재지임. 면적은 65.9km².
- 158) 당상(堂上) :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상(上)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 종친은 명선대부, 의빈(儀賓)은 봉순대부 이상이 이에 해당함.
- 159) 국은(國恩) : 백성이 나라로부터 받는 은혜.
- 160) 쌍가마(雙--) : 말 두 마리가 각각 앞뒤 채를 메고 가는 가마.
- 161) 외방(外方) : 서울 이외의 지방. 외지(外地).
- 162) 부영(富營) : 부유하고 번영함.
- 163) 분(分)깃하다 : 유산을 한 몫 나누어 주다.
- 164) 이천 : 지명으로 이천(伊川) 혹은 이천(利川). 전자는 강원도, 후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음.
- 165) 돈도지(-賭地) : 돈놀이에서, 원금은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일정한 돈이나 곡식으로 이자만을 받기로 하고 빌려 주는 빚돈.
- 166) 우귀(于歸) : 전통 혼례에서, 대례(大禮)를 마치고 3일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
- 167) 효봉구고(孝奉舅姑) : 시부모를 효로 봉양함.
- 168) 승순군자(承順君子) : 남편을 따름.
- 169) 안치다 : 어려운 일이 앞에 밀리다.
- 170) 범어사(凡於事) : 세상의 모든 일.
- 171) 승기자(勝己者) : 나를 이긴 사람.
- 172) 돈돈 : 몇 돈으로 헤아릴 만한 얼마간의 돈.
- 173) 푼푼 : 한 푼 한 푼의 돈.
- 174) 기이다 : 어떤 일을 숨기고 바른대로 말하지 않다.
- 175) 외정(外丁) : 남자.
- 176) 수숙(嫂叔) :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77) 적선(積善) : 착한 일을 많이 함. 동냥질에 응하는 일을 좋게 이르는 말.
- 178) 진나부(秦羅敷) :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왕인(王仁)의 처 진나부(秦羅敷).
- 179) 무정지책(無情之責) : 아무 까닭 없이 책망함. 또는 그런 책망.
- 180) 징간(徵看) : 보아서 징험하다, 보아서 알다' 정도의 뜻인 듯함.
- 181) 애중지심(愛重之心) :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 182) 효부(孝婦) :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
- 183) 자취 :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
- 184) 청승긋다 : 궁상스럽고 처량하여 보기에 언짢다.
- 185) 추다 :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훌륭하거나 뛰어나다고 말하다.
- 186) 극난(極難) : 몹시 어려움.
- 187) 푸점 : 남에게 인정이나 불임성, 포용성 따위를 가지고 대함. 또는 그런 태도나 상대.

- 188) 손그릇 : 거처하는 곳에 가까이 두고 늘 쓰는 작은 세간. 반질고리, 버릇집, 손궤 따위가 있음.
- 189) 중난(重難)하다 : 중대하고도 어렵다.
- 190) 이간지설(離間之說) :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의 사이를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하는 말.
- 191) 역력(歷歷)히 :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 192) 흠처(欠處) :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 193) 가간(家間) : 온 집안.
- 194) 시비지사(是非之事) :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 될 일.
- 195) 교리(校理) : 조선 시대에, 집현전, 홍문관, 교서관, 승문원 따위에 속하여 문한(文翰)의 일을 맡아 보던 문관 벼슬. 정오품 또는 종오품이었음.
- 196) 시비지단(是非之端) : 시비가 일어나는 꼬투리.
- 197) 자고지금(自古至今) :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 198) 적선(積善) : 착한 일을 많이 함.
- 199) 적악(積惡) : 악한 짓을 많이 함.
- 200) 전래(傳來) : 전하여 내려오는.
- 201) 기명(器皿) :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02) 낭속(廊屬) : 예전에,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던 말.
- 203) 개과천선(改過遷善) :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
- 204) 엄절(嚴切)하게 : 태도가 매우 엄격하게.
- 205) 치죄(治罪) : 허물을 가려내어 벌을 줌.
- 206) 잔걱정 : 자질구레한 걱정.
- 207) 극난(極難) : 몹시 어려움.
- 208) 안규모 : 부녀의 씬셈이인 듯함.
- 209) 불수년(不數年) : 두서너 해가 다 걸리지 아니함. 또는 그런 동안.
- 210) 구차(苟且) : 살림이 몹시 가난함.
- 211) 삼종지의(三從之義) : 삼종지도(三從之道).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였음. '예기'의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나오는 말임.
- 212) 여필종부(女必從夫) :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
- 213) 외인(外人) : 한집안 식구 밖의 사람.
- 214) 천륜(天倫) :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 215) 칠거지악(七去之惡) :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몹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따위이다.
- 216) 말말끝 :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던 끝.
- 217) 사덕(四德) :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 마음씨[婦德], 말씨[婦言], 맵시[婦容], 솜씨[婦功]를 이룸.
- 218) 무자(無子) :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 무자식.

- 219) 음행(淫行) : 음란한 짓을 함. 또는 그런 행실.
220) 요악(妖惡) : 요사하고 간사하며 악독함.
221) 발끈발끈 :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왈칵 자꾸 성을 내는 모양.
222) 호의호식(好衣好食) :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223) 안목(眼目) :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224) 범연(泛然)하다 :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데면데면하다.
225) 삼승(三升) : 석새삼베.
226) 목 : 무명으로 된 것.
227) 석새베 : 석새삼베. 240올의 날실로 짠 베라는 뜻으로, 성글고 굵은 베를 이르는 말.
228) 우귀(于歸) : 전통 혼례에서, 대례(大禮)를 마치고 3일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